

카톡 등 AI 실시간 통역 강화... S펜 '스케치 변환' 지원

SAMSUNG

갤럭시 AI 기반 성능 대폭 개선
폴드6, 전작대비 두께 1.3mm ↓
플립6, 커스터마이징 기능 제공

삼성전자가 갤럭시AI의 기술력을 탑재한 동시에 역사상 가장 얇고 가벼운 폴더블폰을 공개했다. 갤럭시 Z폴드6와 Z플립6는 외관상 큰 변화는 없지만 AI 기능으로 인해 성능이 대폭 개선됐다. 문서는 물론 대화까지 자연스러운 통번역이 가능해졌다. 특히 배터리 용량이 대폭 확대됐으며 카메라 성능을 크게 끌어올렸다.

◆외국어 장벽 허문다 “통역 번역 OK”
갤럭시 Z폴드6는 가벼워진 무게와 함께 다양한 AI 기능을 자랑한다. 주요 특징은 ▲‘노트 어시스트’(Note Assist)를 통한 AI 요약 기능 ▲실시간 통역 ▲텍스트 번역 ▲개선된 카메라 ▲가벼워진 무게 ▲늘어난 배터리 수명 등이다. 폴드6는 역대급 얇은 두께를 자랑한다. 폴드6의 펼친 두께는 전작보다 0.5mm, 접은 두께는 1.3mm 얇아진다. 색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4에서 갤럭시 Z 폴드6(좌)플립6(우) 제품이 전시되어 있다.



상은 웨도우, 핑크, 네이비로 출시된다. AI 기능을 통한 성능도 역대급이다. ‘삼성 노트’ 앱에서 사용자가 작성한 내용을 번역과 함께 요약해준다. 자동으로 서식을 변환해 주는 노트 어시스트는 ‘음성 녹음 텍스트 변환’ 기능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삼성 노트’ 앱에서 바로 음성을 스크립트로 변환할 수 있고, 스크립트를 번역과 함께 요약도 할 수도 있다.

노트 어시스트에는 ‘PDF 오버레이(PDF Overlay) 번역’ 기능도 추가돼

PDF 문서 내용이 그대로 번역된다. ‘삼성 키보드’에는 간단한 키워드만으로도 메일 본문이나 SNS 게시글의 문구를 작성해 주는 ‘글쓰기’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다.

통화 시 실시간으로 양방향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시간 통역’은 기본 ‘전화’ 앱을 넘어 다양한 메시지 앱과 연동된다. 카카오톡, 라인, 구글 미트, 왓츠앱, 텔레그램 등 다양한 앱에서 사용이 가능해져 더욱 제한 없는 의사 소통을 지원한다.

무엇보다 AI를 통해 S펜 경험을 새롭게 확장했다. 새롭게 추가된 ‘스케치 변환’ 기능은 갤러리의 사진이나 노트 위에 S펜으로 스케치를 더하면 생성형 AI가 단순한 스케치를 정교한 이미지로 완성해준다.

◆‘카메라·배터리 걱정 NO’
갤럭시 Z 플립6의 경우 단점으로 지적되던 카메라 성능과 배터리 용량이 대폭 개선된다. 카메라 화소는 전작 1200만에서 5000만 화소로 대폭 향상된다. 이는 갤럭시S24일반·플러스와 동일

한 카메라 성능이다. 배터리 용량은 전작 3700mAh에서 대폭 확대된 4000mAh를 탑재한다. 이에 따라 더 늘어난 배터리 수명을 자랑하며 영상 재생 시간 23시간(전작 20시간), 오디오 재생 시간 68시간(전작 57시간)을 제공한다.

외부 디스플레이 화면(플렉스 윈도우)은 전작(3.4인치) 보다 0.5인치 넓어진다. 특히 외부 화면이 커지면서 AI를 활용한 다양한 사용자 경험이 제공된다. ▲전면 디스플레이 통역 기능 ▲AI를 통한 채팅 내역 확인 ▲커스터마이징 등이다.

휴대성이 뛰어난 디자인과 사용자가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약 86.1mm의 커버 스크린 ‘플렉스 윈도우(FlexWindow)’는 갤럭시 AI와 만나 더욱 향상된 사용성을 제공한다. 새롭게 추가된 ‘답장 추천(Suggested replies)’ 기능은 최근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분석해 맞춤형 답장을 제안한다.



/프랑스(파리)=구남영 기자 유튜브 영상 제공
koogija_tea@metroseoul.co.kr YouTube

반지만 끼면 AI 건강관리... “하루종일 착용해도 괜찮네”

체험기

갤럭시 링

반지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
정밀한 센서 강점... 수면 등 분석

삼성전자가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링을 공개하며 헬스케어 시장 확장에 나섰다. 갤럭시 링은 최초의 반지 형태로 제작된 웨어러블 기기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집약된 센서 기술로 수면 중 편안하게 주요 건강 지표를 추적하고 개인화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갤럭시 링’의 강점은 정밀한 측정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위치 제품군에 비해 가볍다는 점에서 거부감 없이 긴 시간 착용하는 것에 유리하다. 과연 그럴까. 기자는 직접 갤럭시 링을 착용하고 수면에 취해봤다.

◆“어! 진짜 가볍네...” 디자인·성능 기대 이상

‘갤럭시 링’을 처음 착용했을 때 가장 놀란 것은 생각보다 너무 가벼웠다는 점이다. 센서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라 어느정도 두껍고 무거울 것이라는 막연한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착용해 보니 정말 가벼웠다. 두께도 꽤 얇은 편이었다.

디자인은 제품의 결면이 오목하게 들어가는 유니크함이 눈길을 끌었다. 색상은 ▲티타늄 블랙 ▲티타늄 실버 ▲티타늄 골드 3가지로 출시가 되는데, 블랙과 실버는 무광으로 좀 더 세련된 느낌을 줬다.

‘갤럭시 링’은 총 9개의 사이즈로 출시가 된다.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별도의 사이즈 키트를 통해 자신에게 꼭



반지 형태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 링 /구남영 기자

맞는 사이즈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닷컴에서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먼저 사이즈 키트를 보내준다고 설명했다.

‘갤럭시 링’은 가벼운 무게로 인해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링을 소개하면서 수면 건강 측정을 강조했다. 정말 잠을 잘 때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내구성도 합격점을 받았다. 갤럭시 링의 외부의 오목한 디자인은 독특한 매력을 보이면서도, 스크래치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다. 몇시간 착용해 보는 동안 여기 저기 마찰이 있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링’에 티타늄 그레이드 5 소재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IP68등급과 10ATM의 방수 방진 기능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손을 씻을 때나 샤워할 때도 벗어야 하는 불편함이 없었다.

배터리 수명도 만족스러웠다. 몇시간 사용해서는 배터리 사용량에 큰 변화가 없었다. 삼성전자는 “한번 충전하

면 최대 일주일 가량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사용성과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전용 충전 케이스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 반지 사이즈와 정확히 일치된 투명 충전 케이스는 충전을 위해 반지를 뺏으면 하얀 빛의 원형 LED 라이트가 들어오면서 연결 상태를 알려 주는데, 매우 고급스러운 느낌을 줬다.

◆건강관리·스마트폰 제어 등 다양한 기능 지원

갤럭시 링은 가벼운 무게로 잠자리에서도 전혀 부담없이 착용할 수 있었다. 헬스 기능을 제공하는 위치도 있지만, 솔직히 시계를 차고 자는 것은 습관을 들이기 전까지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갤럭시 링은 처음 착용 후 수면에 들었을 때도 어떠한 불편도 없었다. 24시간 쉬지않고 건강관리를 해주는 제품으로는 이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갤럭시 링’은 센서를 통해 수면 패턴을 분석해 준다. ▲실제 수면 시간 ▲잠들기까지 걸린 시간 ▲수면중 움직임 ▲심박수 ▲수면 중 호흡수 등 새롭게 추가된 5가지 지표를 통해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갤럭시 링’은 수면 외에도 다양한 건강관리 기능을 제공했다. 심박수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알람을 주는 ‘심박수 모니터링’, 걷거나 달릴 때 자동으로 운동을 감지해 칼로리·심박수 구간 등을 측정하는 ‘운동 트래킹’ 등 다양한 헬스 기능을 지원했다.

에너지 스코어(Energy Score)로, 갤럭시 링으로 측정된 헬스 데이터를 갤럭시 AI가 분석해 최적화된 건강 가이드를 제공했다. ‘갤럭시 링’과 연결된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매

일 아침 컨디션을 점수로 확인하고, 컨디션 회복에 도움이 되는 건강 메시지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전날 밤 잠을 수면 질이 안 좋았던 날은 컨디션 점수가 낮게 나오고, 잠들기 전 따뜻한 물을 한잔 마시고 잠에 들라는 가이드가 제공됐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기능은 알람끄기 기능과 사진촬영 기능이다. 기자는 알람을 여러 번 설정해뒀을 때 불편함이 많았다. 하지만 갤럭시 링을 한번 클릭하면 알람은 꺼진다. 특히 단체사진을 촬영할 때 휴대폰을 멀리 세워두고 링을 클릭하면 자동 촬영되는 점도 매력을 더했다.

◆갤럭시 기기 연계... 분실걱정 없이 사용

‘갤럭시 링’은 다른 갤럭시 기기와 함께 사용하면 더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삼성 파인드(Samsung Find)’에 ‘갤럭시 링’을 등록하면, 갤럭시 링의 위치 확인이 가능해 분실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갤럭시 링’은 재미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엄지와 검지를 두번 맞대는 ‘더블 핀치’ 제스처를 취하면 연결된 갤럭시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조작할 수 있어 셀카를 찍거나 원거리에서 촬영 시 아주 유용했다.



갤럭시 Z 플립6 올림픽 에디션 /삼성전자

‘플립6 올림픽 에디션’ 공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공식 파트너(Worldwide Partner) 삼성전자가 2024 파리 올림픽·패럴림픽 참가 선수단을 위해 특별 제작한 ‘갤럭시 Z 플립6 올림픽 에디션’을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했다.

‘갤럭시 Z 플립6 올림픽 에디션’은 오는 12일(현지시간)부터 프랑스 파리 상젤리제 거리에 위치한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1만 7000여 명의 파리 올림픽 참가 선수 전원에게 ‘갤럭시 Z 플립6 올림픽 에디션’을 제공해, 각국에서 모인 선수들이 언어의 장벽없이 올림픽의 감동을 생생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올림픽 에디션은 얇고 날렵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갤럭시 Z 플립6’의 옐로우 색상에 금빛 올림픽·패럴림픽 엠블럼과 삼성 로고가 새겨진 특별한 디자인을 자랑한다.

함께 제공되는 전용 플립스튜디오 케이스는 프랑스 국가대표팀의 개막식 의상을 디자인한 LVMH 그룹 럭셔리 남성복 브랜드 벨루티(Berluti)와의 협업으로 완성됐다. 벨루티만의 가죽 염색 기술인 파티나(Patina) 기법과 올림픽 오륜기에서 영감을 받은 색 조합을 더한 디자인으로 올림픽 정신과 화합의 가치를 표현했다.



/프랑스(파리)=구남영 기자